

코로나 우울증, 문화공연으로 해소

순창 하반기 문화공연 '다채'

군, 체계산 힐링콘서트 시작으로
사계절 예술축제·오셀로 등
음악·국악·연극 등 공연 준비



순창군이 코로나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정서에 생기를 북돋우기 위해 하반기부터 문화공연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

순창군이 코로나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정서에 생기를 북돋우기 위해 하반기부터 문화공연을 재개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다양한 문화공연과 행사 등을 추진하며 주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관련 행사들이 모두 취소되며,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군은 문화공연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조심스레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체계산 힐링콘서트'를 시작으로 '사계절 예술축제', '오셀로', '여보 나도 할 말 있소?' 등 음악, 국악, 연극, 뮤지컬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준비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총 5개 공연이 선정됨에 따라 순창군민은 전국 단위의 수준 높은 예술단체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을 통해 음악 위주의 공연들도 연극과 뮤지컬, 무용 등 장르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공연 중 '오셀로'는 세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로, 오로지 무용으로만 표

현한 작품으로, 몸 동작 하나하나에 감정을 실어 표현해 책 속에서 느끼던 오셀로의 감정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는 영유아 아이들의 베스트 셀러를 기반으로 한 가족극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언어유희, 신나는 동작들로 구성해 아이와 부모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정부 방역방침이 바뀌면, 그에 따라 공연일정도 추후 조정해 나가겠다"면서 "지역내 문화공연이 다시 활기를 띌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최근 이태원 클럽사건으로 촉발된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방침을 예의주시하며, 문화공연 일정을 조심스레 조율해 나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 운일암반일암 대불바위 전경.

국가산림문화자산 관광자원화 박차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대불바위 등 3곳 대상 산림자산 보전 주변 자원과 연계

진안군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데미샘'과 '하초 마을숲', '진안 운일암반일암 대불바위와 열두굴' 3개소에 대해 산림자산을 보전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자원화를 모색 중이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역사적 보전 가치가 높은 숲, 나무 등 유·무형 산림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그 가치를 평가해 산림청에서 지정한다.

군은 이를 보전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4월 학술용역을 완료했다. 현재는 종합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이번 학술용역으로 입증된 지질적,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전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담 섬바위', '백운 집전바위'를 신규 국가산림문화자산 대상으로 발굴해 4월 신청을 마쳤다.

전춘성 군수는 "신규 발굴한 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산림이 주는 풍요로움과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잘 가꾸고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가람, 묵향으로 꽃피다'... 여류 문인화가 재능기부

익산시, 가람문화관에서 화초시조 문인화전 기획전시

송현숙·황인엽·최순희 등 지역 여류 문인화가 12명 참여

익산시는 가람 문화관에서 13일 '가람, 묵향으로 꽃피다!'를 주제로 가람화초시조 문인화전 기획전시 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숙 부시장을 비롯한 송현숙, 최애순, 오금섭, 조완남, 최순희, 황인엽 등 지역 여류 문인화가 등이 함께하여 가람 시조를 서예 작품으로 음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획전시는 제자복, 화초복, 술복의 삼복이인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화초복'에 주목하여, 1939년 문장사에서 발간된 '가람시조집'의 제2부에 수록된 난초, 매화, 수선화, 파초 등 '화초'와 관련된 12편의 시조를 서예 작품으로 담았다.

가람 선생이 특별히 좋아하셨던 화초 중의 하나인 '매화나무'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선 후기 때 등장하였던 가곡과 시조의 장구 장단 기보법인 '매화점장단'을 표현하는 그루터기도 배치했다.

특히, 익산 지역 여류 문인화가 12인 즉 송현숙, 황인엽, 최순희, 고미영, 조완남, 이도영, 한소윤, 오경자, 정미숙, 이승연, 오금섭, 최애순 작가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져 더욱 뜻이 깊다.

6월 7일까지 개최되는 기획전시회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람문화관 전화(063-832-1891)로 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읍시립박물관·미술관 운영 재개

코로나19 대응 완화 '생활 속 방역지침'에 맞게 기획·상설전시 진행

시립미술관에서 내달 4일 가족사랑 기획전시 '소박한 선물' 전 개막

정읍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을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 중이었던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이 지난 12일부터 재개관했다.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코로나19 대응 완화 조치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맞게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를 진행한다. 시는 도내 운영 재개 방침에 따라 개관 전

시설물 방역 소독 시행, 개관 시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 검사, 소독제 구비 등을 통해 방역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관람 시 관람객 거리 유지와 시간대별 인원 조정 등 개인 관람 위주로 관람을 진행하며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중단하기로 했다.

시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으로 구성된 가족사랑 기획전시 '소박한 선물'전을 6월 4일 개막한다.



전시 개막 전까지는 상설체험 이용자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시청 홈페이지) 시스템을 이용해 재료를 수령해 가는 방법으로 이용자 집중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이용하는 시민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시시설 이용 및 일정 안내는 정읍시 홈페이지 또는 시립박물관(063-539-6791) 및 시립미술관(063-539-6420, 64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